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티베트인 20만명, 불교 승려 60여명 기독교로 개종

지진 구호활동 통해 그리스도 사랑 발견

중국 시짱지구라고 불리는 티베트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투데이는 티베트인 20만 명과 라마 승려 62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티베트까지 영향을 미친 네팔 강진 이후 기독교인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 한 라마교 주지승이 기독교로 개종한 뒤 목사가 됐다. 당시 규모 7.8의 강진으로 800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지진의 피해는 네팔과 티베트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티베트가 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치료와 함께 깊은 위로의 손길을 건넨 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남아시아지역을 섬기고 있는 선교단체 아이안엑세스 대표 조 핸들리는 “우리가 재난에 처했을 때 불교인들이나 힌두교인, 다른 종교인을 볼 수 없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 주

었다.”는 라마승 출신 목사의 말을 전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가 뿌려지자 이곳에서 싹이 트기 시작했다.

라마 지도자가 개종하고 그를 따르던 라마 승려 62명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 지역에서 1년 만에 약 20만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위도정보에 따르면 티베트의 종교분포는 라마불교 80%, 기독교 0.3%, 이슬람교 0.2%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GNPNEWS]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고린도후서 3:3a)

기도 |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방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된 교회를 통해 천국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을 영접한 자들도 그 땅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제공: WMM

- 아프리카 르완다의 시골교회 주일학교

저요! 저요! 성경공부 시간에 몇몇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하다. 큰 예배당에 달랑 두 줄로 빼곡히 앉아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 학생들 뒤에서 성경을 품고 서 있는 한 사람은 이 천국복음이 온전하게 전

해질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은 미련하다 말하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의 핵심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기를 소망한다. 교실 뒤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가

득 차 마침내 십자가의 군사들로 열방에 흩뿌려지기를 기도한다. [GNPNEWS]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18)

다음호는 7월 31일자로 발행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15)

당신의 노후준비에 죽음 이후의 삶이 포함되어 있나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이같이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모았다.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내 몸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살만해서 이젠 더 바랄 게 없는데 뭐가 답답해서 교회 같은 그런 곳을 다니겠어!”

남 부러울 것 없이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신다니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난 뒤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삶

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현실만 바라보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해선 관심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당신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미래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일했고 노후도 준비하고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여러 가지로 교육하며 가르쳐왔습니다. 단지 죽음 이후의 삶을 미래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 당신은 누구보다 ‘내일’이란 미래를 신중히 생각

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설계한 삶은 길어도 겨우 100년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당신은 영원이란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이란 시간을 보지 못했으나 당신은 ‘내일’이 있을 것을 믿고 ‘내일’ 쓸 돈을 통장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만나지도 알지도 못하는 ‘내일’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지옥에 보내지 않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죄의 대가인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 당신은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신이 준비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주세요. 예수님을 믿어 영원을 준비하십시오. [GNPNEWS]

INSIDE

- 02** 뉴스 | 유럽 러시아, 선교활동을 제한하는 반(反)테러법 제정
- 03** 기획 | 고려인마을 “희망이 없던 이주된 다음세대가 예수님 만나 꿈이 생겼습니다”
- 05** 인터뷰 | 김남분 권사 “다 잃어버린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주님의 시선으로 이 시대를 보라”
- 08** 뷰즈인 북스 | “조용한 혁명, 기독교 학교”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



유럽

러시아, 선교활동을 제한하는 반(反) 테러법 제정

가정집과 길에서 신문이나 책자로 전도금지 등 규정 담아



▶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국가두마(의회) 건물(출처: 크리스치니티 투데이 캡처).

러시아가 최근 통신과 종교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반(反)테러법안을 제정, 기독교인들의 전도와 선교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크리스치니티투데이 등 기독교언론과 현장 선교사들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러시아에서 1917년 공산당 시절 레닌에 의한 볼셰비키 혁명 때보다 더 열악한 선교 환경에 놓일 것으로 전망됐다.

인권단체와 통신사업자 등의 강한 반대에도 지난 29일 국가 두마(의회)에서 통과된 반테러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이 달 20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은 무선통신사업자들이 통화,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의 전송과 수신 내역에 관한 정보를 3년 동안 보관하고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용은 6개월 동안 보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통신사업자들은 사이트 접속 내역에 관한 정보는 1년, 동영상 포함 교신 내용은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했다.

특히 종교 활동과 관련, 집에서 타인에게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가정집을 교회에 양도하거나 교회로 사용할 수 없다. 길에서 전도하거나 문서 또는 신문이나 책자 등을 나눠주면서 전도할 수도 없다. 영주권이 아닌 거주 비자 등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 선교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한 선교사는 “러시아 선교가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다.”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지난달 29일부터 7월1일까지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업자들과 인권 단체들은 푸틴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 같은 기대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GNPNEWS]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난민 식량부족으로 1200여 명 사망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 등을 피해 고향을 떠난 난민 1200여 명이 식량부족과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밝혔다.

이 신문은 국제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를 인용, 2만4000여 명이 머물고 있는 보르노주의 바마 지역의 난민캠프가 재앙 수준의 긴급상황에 처해 있다고 이같이 보도했다.

의료단체 국경없는의사회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바마 난민 캠프에는 매일 새로운 무덤이 생기고 있으며, 하루 최대 30여 개의 무덤이 새로이 들어서고 있다. 이 난민들의 주된 사망 원인은 영양부족과 설사 때문으로



▶ 난민들을 위해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출처: LA times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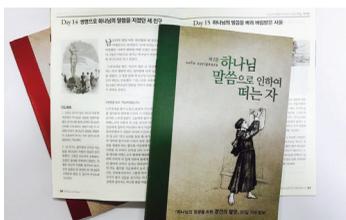
알려졌다.

의사회 관계자는 “바마 캠프는 지금 거의 고립돼 있는데, 8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가 중증 급성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나이지리아 정부군이 보코하람을 축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으나, 분쟁은 심각한 난민 위기를 낳았고 약 200만 명이 고향을 떠났다. [GNPNEWS]

한국

‘경건의 열망 30일 기도정보’ 7월분 배포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의 열망’을 위한 기도가 10월까지 진행된다.

교회나 기도모임, 가정, 개인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 기도

네트워크는 매일 발간되는 30일 기도정보집을 활용하면 된다. 기도정보집은 뜻 있는 분들의 헌금으로 제작, 무료 배포된다. 문의 ☎ 010-2798-4641(복음기도동맹 사무국)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6.19~7.2)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네팔, 성경 배포하던 기독교인 7명 긴급 체포

네팔 기독교인 7명이 도라카 지역에서 885명의 학생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다 체포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네팔은 2015년부터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 왔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네팔에 주의 종들의 순종을 받으시고 놀랍게 복음의 결실을 맺어가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체포된 형제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중국 연청, 우박 섞인 토네이도로 98명 사망, 846명 부상

중국 장쑤성 연청 푸닝현과 세양현 일대에 폭우와 계란 크기 만한 우박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휩쓸며 주민 98명이 숨지고 846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중이라고 24일 장쑤성 정부의 말을 인용해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주여,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우리의 실존을 봅니다. 다만 주의 주권과 선하심이 이 모든 일들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중국의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주소서.

미국 텍사스 낙태금지법 위헌 결정, 미 전역으로 확산되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27일(현지시간) 낙태시설을 규제한 텍사스주(州) 낙태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유사한 법을 도입한 다른 주들도 난관에 봉착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미국은 현재 31개 주에서 현재 낙태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낙태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시도들을 막아 주소서. 오직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죄인의 끝없는 이기주의를 통회하고 회개하게 주소서. [GNPNEWS]

한국

제8기 청소년 복음캠프 8월 1~5일

복음으로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제8기 청소년 복음캠프가 오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린다. 14세부터 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 캠프에 참여할 청소년은 7월 9일까지 캠프 홈페이지(cafe.naver.com/goodnewsprayer)에서 원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

다. 복음학교, 청소년복음수련회, 청소년복음캠프, 헤브론캠프를 수료한 사람은 섬김이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에 접수하면 된다. 회비는 현금으로 운영된다. 문의 ☎ 010-9448-0624 singout12@naver.com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6년 7월 2주~7월 4주

7월 2주(7.11~7.16)

▶대구 동구 / 대구 호산나교회 (정명식) 053-963-8040

7.14~7.15(07시~19시)

▶전주 완산구 / 전주은혜샘교회 (정**) 010-4272-9905

7.14~7.16(08시~20시)

7.21~7.23(08시~20시)

7.28~7.30(08시~20시)

▶인천 서구 / 베데스다공동체 (송**) 010-7322-5456

7월 3주(7.18~7.23)

▶강원 강릉 / 은강교회 (박**) 010-7439-7020

▶경기 광주 / 동산의샘교회 (김시환) 031-765-3927

7.18~7.19(09시~21시)

▶경기 용인 / 수지선한목자교회 (연현주) 031-265-0191

7.21~7.22(06시~18시)

▶전북 전주 / 전주사론교회 (진**) 010-2638-1440

7월 4주(7.25~7.30)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 (강은선) 061-271-9981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 (김희락) 031-750-1009

7.28~7.29(07시~24시)

▶전북 전주 / 전주시향교회 (정**) 010-8295-6889

기도참여 문의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52팀 ☎ 070-4803-9026~7, 010-4192-4365 www.prayer24365.org



“희망이 없던 이주민 다음세대가 예수님 만나 꿈이 생겼습니다”

고려인마을이라는 단체가 시작된 지 12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한 분(이천영 목사)을 통해서 여러 고려인 가족들이 광주로 내려와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다양한 필요들을 따라 움직이면서 지금 광주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수는 3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안산이나 경주 혹은 부산, 인천, 서울 등에도 있지만, 광주 광산구 월곡동이라는 단일 지역에 가장 많은 고려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의 90%가 고려인 등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직업 상담, 부동산, 병원, 유치원, 학교, 러시아 식당 등 생활에 필요한 기관이나 시설들은 대부분 들어섰습니다. 고려인마을이라는 비영리단체(NGO)를 통해 이런 기반시설이 차츰차츰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매 주마다 러시아어로 드려지는 예배, 교회가 이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으로 이곳에는 국내에 입국한 고려인 가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들과 함께 이곳으로 오게 된 고려인 1.5세 즉, 다음세대 교육은 가장 시급하게 돌아보아야 할 영역이 됐습니다.

갑작스런 한국행, 이주민 자녀들의 문화충격

이주민 1.5세들은 부모님의 갑작스런 이주에 따라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욱이 막노동이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맞벌이를 하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정상적인 양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 살아가면서 삶의 태도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비참합니다.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술, 담배, 문란한 성 생활 등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이주민으로 복음 때문에 이 땅에 들어와 살게 된 저는 우연히 이곳 고려인마을에 관한 소식을 듣고 찾아와 이들 청소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2년 전 이곳을 처음 찾았을 때, 주일학교는 전임 사역자 없이 명맥만 유지한 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자영업을 하시는 집사님의 섬김으로 주일학교가 운영되었습니다. 저는 새날학교라는 이주민학교를 통해 그나마 아이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님의 때가 되어 올해 초 1월 5일에 고려인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저와 카자흐스탄 출신 선교사 1명, 한국인 선생님 등 세 명이 이 센터를 실질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꾸준히 만남을 이어온 고려인 아이들은 아동센터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방과후학교처럼 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 진행된 첫 모임에 25명 정도 모였습니다. 학생 수가 조금씩 늘어나 6월말 현재 이 학교에 등록한 아이들은 모두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 70여 명의 아이들이 매주 주일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일 40여 명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 받는 모임이 형성되었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십자가사랑교회의 도움을 받아, FC글로리아축구단에서 활동하는 복음의 증인들을 만나 티파티 모임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틈틈이 아이들과 다양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 명의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전심으로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센터 선생님들은 집에서 부모와 쉽게 교제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때로는



아빠 엄마가 되기도 하고, 형이나 삼촌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센터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대화 속에 담겨있는 모든 가치들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물론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있고 다듬어지지 않은 태도도 있지만 센터에서 하는 말이라면 아이들은 거부감 없이 받게 됐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회복되는 이주민 다음세대

아이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듣는 음악, 쓰는 말, 관리하는 SNS 페이지도 달라졌습니다.

다시는 세상 음악을 안 듣고 오직 찬양만 듣고 찬양만 부르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또 예쁘고 멋진 자기 사진들로 채웠던 SNS 대문 사진을 지우고 예수님의 사진을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삶에서 향기로운 꽃처럼 하나씩 예수생명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자기 사진들을 다 삭제하고 예수님 사진, 신앙 고백들, 신앙 영상만으로 자기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꼭 하고 싶

은 일이나 프로그램이 뭐냐고 물어보면 ‘예배’라고 대답합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 음악 교실, 연극 교실을 섬기기 위해 오신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은 미술치료 수업시간에 원하는 그림을 그려보라는 선생님의 제안에 어떤 학생이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렸냐고 묻자 곧바로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다양한 모습으로 모든 수업시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압니다. 한국어도 못하고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정서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또 선교사가 되겠다고 자기 꿈을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자신의 포부를 밝힙니다. 축구선수든 통역사든 어떤 직업을 갖든 선교적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 세상 유혹에 빠지는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심지어는 자살 시도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쓴 소리를 하는 선생님에게 흥기를 들이대고 헐박하는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지만 포기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나는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것 같아.’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교사들 안에는 힘

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위기의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주님이 항상 승리하십니다.

고려인 다음세대가 한국 다음세대를 전도하기도

현재 이 사역을 섬기는 저희들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따금 한국인 사역자들이 방문해 잠깐이나마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로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는 두 사람이 전부입니다. 100여 명의 아이들을 일일이 상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셈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건강에 한계가 오기도 하고, 최근 과로로 병원신세를 진 사역자도 있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외국 이주민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기에 주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이주민 다음세대가 살아나면 열방만 아니라 한국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사진 수업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고려인 아이들과 탈북민 아이들이 함께 수업도 듣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탈북 아이들과 활발한 교제가 시작되면서 한국 아이들도 그 수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복음을 모르는 아이들이 바로 한국 아이들이었습니다. 고려인 아이들 중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정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려인 아이들이 그 한국 친구에게 복음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복음은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이기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수준의 일을 하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GNPNWS]

안드레이(고려인지역아동센터 교사)



기획 | 베트남 선교 열전(15) - 베트남 전쟁 전후시기 선교 이야기

“뚝의 죽음을 통해 스테반의 순교를 이해할 수 있었다”

산지 마을 짜오 래오 교회 성장사

이 연재는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베트남에 입국한 찰리, 에그룡 선교사 부부가 전쟁의 참화 가운데서 복음의 통로가 된 과정과 베트남 주민들의 상황을 담고 있다. 대하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는 베트남의 현대 선교사(史)를 이들의 회고록 ‘베트남에 사랑을 담아’(To vietnam with Love)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부흥의 열기가 가득한 짜오 래오

1971년 부흥이 시작될 때 우리는 빨레이꾸에서 짜오 래오(Cheo Reo)로 이주했다. 자라이어 사복음서와 시편의 번역작업을 끝내기 위해 좀 더 한적한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짜오 래오는 빨레이꾸에서 110Km 정도 떨어진 자라이 부족 지역이었다.

당시 프랭클린 어윈은 자라이족들에게 ‘딥앤와이드(Deep & Wide)’ 전도 방법을 소개했다. 구역별 공과 교재인 그 책을 통해 크리스천들이 친구들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구역원이 16명이 되면 독립해 간증과 전도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자체적으로 성도들의 양육

이 이루어지며 작은 교회가 되었다. 베트남이 공산주의자들의 손아귀에 있을 때 산속 부족마을의 교회가 성장한 것은 베트남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이야기로 남아있다.

우리는 자라이 사역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맡겼다. 이것이 그곳의 크리스천들이 부흥을 리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다. 사실 우리가 짜오 래오에 처음 들어갔을 때 리더십 역할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자라이 사람들은 사랑과 존경으로 교회 안의 실제적인 모든 문제를 나눠왔다.

그들은 나의 도움 없이도 주님을 잘 따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 리더의 책임감을 벗겨 주셨다. 짜오 래오는 부흥의 여파로 기도 모임이 한창 일어나고 있었다. 그날 강대상 가까이 있는 옆문을 통해 교회로 들어갔다. 그런데 마치 주님께서 내 뒤를 따라 들어오신 것 같았다. 성전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많은 사람이 무릎 꿇고 마루에 엎드려져 있었다. 그 때 주님이 오셔서 자라이 부족을 나의 손에서 교회의 누군가에게 옮기시는 것 같았다. 이 부흥의 주역은 바로 그



▶ 1970년 대 베트남 교회의 모습(좌), 예배하는 아이들과 자라이족 전도사들(우) (출처: CMA alliance)



들이었다. 그 후 나는 교회 일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 자라이 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은 좋은 경험이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떠난 순교자들

왕과 브로의 도움으로 성경 번역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들을 만나는 시간 외에 나는 은자(隱者)처럼 살았다. 나는 가끔 집 앞에 있는 새까맣게 탄 오토바이를 바라보았다. 빨레이꾸 교회의 전 사역자 아마 뚝(Ama Tum)의 것이었다. 난 그와 빨레이꾸에서부터 오랫동안 동역했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

다.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면에서 나보다 앞서 있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와 나는 대화가 기억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씨를 뿌리고, 때가 되면 다른 누군가가 거둘 것이다. 우리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의 일을 다한 것 아니겠는가.’ 그는 개인적으로 자라이 형제 200명 이상을 주님께 인도했다. 어느날 그는 오토바이를 몰고 짜오 래오 남쪽 마을로 설교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베트남인들이 그의 가슴에 총을 쏘고 오토바이는 불살라 버린 것이다. 그는 아내와 7명의 자식을 남

기고 주님 품에 안겼다. 수년 전 공산주의자들이 가하오를 고문하고 잔인하게 살해했을 때, 먼 목사를 죽이고 쓰레기처럼 길가에 버렸을 때처럼 나는 분노했다. 그러나 뚝의 순교를 통해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의 순교를 이해하게 됐다. 그들은 하나님 곁에 영원한 처소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기적이게도 나의 사랑하는 전도자 가하오와 먼 목사를 베트남에 붙잡아 놓고 싶어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아마 뚝도 그들의 행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즐거움 가운데 들어간 것이다. [GNPNEWS]



선교 통신

알제리 교회, ‘예배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2006법’은 이슬람 이외의 종교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 교회 폐쇄 통보 잇따라



▶ 알제리 교회(좌)와 1600여 명의 성도들로 가득찬 알제리 북부에 위치한 카빌 교회 예배(우)(출처: SAT-7).

알제리에서는 지난 2006년에 제정된 이른바 ‘2006법’이 종교의 자유를 꽂꽂 묶어놓고 있다. 이 법은 모든 지하교회 자체를 불법 종교모임으로, 전도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놀랄만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알제리 동북부

카빌리 지역의 교회들이 이 법을 근거로 당국으로부터 잇따라 폐쇄 통보를 받고 있다. 베르베르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카빌리는 수도 알제의 동부 지역으로 주로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다.

오픈도어선교회에 따르면, 지난 4

월 티지우주 주의 마트카스에 소재한 한 교회가 바로 이 ‘2006법’을 위반했다며, 모든 종교적 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나라의 합법적인 교단인 알제리 개신교단(the Protestant Church of Algeria)에 가입된 이

교회는 당국으로부터 이 건물에서 기독교 예배가 계속된다면 교회에 대한 법적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알제리기독교교회장 마흐무드 하드 목사는 “2016년 2월에 통과된 새 헌법 36조는 예배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이보다 앞서 비무슬림에 의한 무슬림의 개종금지 등을 규정한 ‘2006법’으로 이슬람 이외의 종교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마트카스 교회에 앞서 올 2월 같은 카빌리 지역의 아티디마 마을에 있는 교회도 ‘2006법’ 위반을 이유로 폐쇄를 명령한 공문을 받았다. 그러나 이 교회는 법을 위반한 일이 없다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지역 당국에 설명했으며 알제리 기독교에 가입한 확인증을 포함해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

이처럼 교회 폐쇄를 통보하는 행정 당국의 입장은 ‘2006법’에 따라 비무슬림 예배는 사전에 허락받은 건물이어야 하며, 또 예배 목적을 위해 특별히 계획된 건물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알제리 개신교에 등록된 교회들을 포함해 예배 장소를 위한 거의 모든 신청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전에 예배장소로 허락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알제리 기독교단에 등록된 43개 지역교회 중 1/3수준인 15개 교회가 자신들의 예배 장소를 가지고 있다. 일부 교회들은 땅을 빌려서 예배 장소로 사용하거나, 가정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외딴 지역에서는 숲이나 산 정상에 모여 지역주민의 적대적인 행위들을 피하고 있다. 이렇듯 알제리 교회는 현재 예배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 [GNPNEWS]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다 잃어버린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김남분 권사

나이 육십에 목마름 가운데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8년 동안 쉬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복음에 젖어들었다. 복음에 젖어들수록 세상에서 누렸던 부와 명예를 잃어갔다.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며 복음이 삶의 전부 되었다는 김남분 권사를 만났다.

-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잠시 목회를 내려놓고 서울로 오게 됐어요. 그때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생활을 했어요. 저도 어리긴 했지만 동생들도 있고 가장이 돼야 한다는 마음이었죠. 그러나 아무도 그런 제 사정은 잘 몰랐죠. 어려서부터 칭찬을 받고 자라면서 제가 잘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무너지니까 감추고 싶었죠. 학력을 말한다는 건 제 존재 전부가 걸린 문제였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도 말하지 못했어요. 최근에야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 결혼은 어떻게 하셨나요?
“한 대학교 총장님의 배려로 학교 비서실에서 근무할 때였어요.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 24살에 결혼했죠. 집안도 좋고 미대에 다니던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풍채가 참 좋아요.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저도 남편을 만나면서 교회에 안 나가게 됐어요. 그게 항상 죄책감으로 남았어요.”

-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나요?
“아이를 낳은 후였어요. 어느 날 집에 전도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다시 혼자 교회에 나가게 됐죠. 남편이 권위적이지 않아 반대하진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없는 게 힘들었어요.”

- 남편분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남편은 대기업에서 디자인 팀장을 맡고 있었어요. 당시 시중에 나와 있는 전화기는 거의 남편이 디자인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너무 일찍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 후에 사업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죠. 남편은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뭐라도 하면 좋으려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수년 동안 집에만 있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좀 있어서 생활이 어렵진 않았지만,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자존심이 상하면서 우울증이



왔어요. 물론 큰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집에만 오면 우울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하나 생각했어요. 나의 체면과 자존심이 모두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은 나의 성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남편을 우러러 봤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나의 성이었던 남편이 무너지고 후

- 그 우울증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셨나요?

“2009년에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시댁쪽 작은어머니로부터 손주 애길 들었어요. 술 담배에 찌들어있던 애가 어딜 다녀오더니 180도 변했다고 했어요. 한 선교단체의 신앙훈련과정이었는데요, 그 애길 들으면서 남편도 그곳에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작 남편이 아니라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있던 아들 내외가 안식년을 맞아 귀국하면서 먼저 그 훈련과정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심신이 지쳐있던 아들 내외도 변한 거예요. 같은 해 9월에 저도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됐어요. 교회 총무를 맡고 있어서도 무지 시간을 내기 어려웠는데 목사님께 부탁했죠. 그때가 제 나이 60이 넘었을 때예요.”

-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정말 갑갑할 때였는데, 총체적인 십자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벅차고 이제 복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못가서 한계에 부딪혔어요. 힘들 때마다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되뇌었어요. 그래도 소용 없었어요. 분명 될 것 같았는데 왜 안 되지? 원점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죠. 목마름으로 6개월 과정의 중보기도 학교에 등록하고 몇 년을 쉬지 않고 섬겼어요. 들었던 총체적 복음이 차츰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열방을 위해 일주일 연속으로 기도하는 자리에도 쉬지 않고 나아갔

죠.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전처럼 짐착했던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했어요.”

- 생활은 어렵지 않았나요?

“특별한 수입은 없는데 쓰는 규모는 그대로니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시작했던 것이 커피전문점과 주식이었어요. 가게는 꽤 잘됐는데 사정이 생겨 그만 두었어요. 그러나 주식은 생활을 위해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선교사님께 주식을 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이 훈련이 돼야 하겠구나 생각하게 되면서 주식을 정리했어요. 수입의 근거 자체가 없어졌으니 아파트도 좀 외진 데로 옮기고요. 그렇게 서울 생활을 접고 터를 잡은 곳이 지금 살고 있는 당진 합덕이에요. 거의 3년이 돼가네요.”

내가 할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 당진에 연고가 있어서 오셨나요?

“아니요. 근처 서산에 기독교교회가 있어요. 그곳 주방을 권사님 한 분이 섬기시는데 ‘이제 나이 먹어 뭐 하겠나? 그 옆으로 가서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자.’는 마음으로 이사를 오게 됐죠. 그런데 이사하기 전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차에 주방에도 다른 분들이 헌신해서 들어오셨고요. ‘내 착각이었나? 뭐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가진 걸 처분하고 교인들과의 유대도 끊고 왔지만 ‘내가 여기 왜 왔지?’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픈 몸 때문에 안식하는 시간이었어요.”

- 어디가 아프셨나요?
“어깨와 두 팔과 등에 이유 없는 통증이 계속 됐어요. 침대에서 남편 부축을 받아야 겨우 일어날 정도였죠.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도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열

마 전에서야 섬유근육통이라는 병명을 알게 됐어요. 아무 원인을 발견 못했을 때 최후에 나오는 진단이라더군요. 제가 얼마나 아픈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주님만이 저의 힘이 되어주세요. 통증이 찾아와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위로가 제 마음을 감싸요. ‘주님이 아시지, 그러면 됐지.’ 감격해서 울고 주님 사랑 때문에 울었어요. 그런 몸으로 지난 해에는 러시아까지 가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을 섬기게 하셨어요.”

- 주님의 은혜가 놀랍네요. 그럼 지금 합덕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죠?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비록 아프지만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전에는 몸매 가꾸고 운동 다니고 친구들과 만나는 게 일상이었지요. 부츠, 밍크코트같이 사치스러운 것은 이사를 올 때 다 버렸어요. 이사를 결정하고 아파트 매매가가 많이 올라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받았어요. 오히려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계속 누렸어요.”

-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었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기도의 자리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쉬지 않고 나갔어요. 사실 말씀을 많이 알거나 많이 보는 것도 아니

요. 그런데 애들처럼 문자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어요. 한번은 아프리카 아웃리치 나가는 팀의 비자 신청 때문에 임시로 현금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팀 안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다 돌려받긴 그래서 얼마를 현금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때 고민도후서에 넉넉히 연보하라는 말씀을 봤어요. ‘넉넉하게 넉넉하게 하란 말씀이구나.’ 다른 건 잘 모를 때도 많은데 이런 건 또 확실하게 응답을 잘 해주세요(웃음). 결국 전부를 드렸어요.”

-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셨네요.

“저는 잘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순종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가족 안에서나 사역현장에서든 제가 말하지 않고 기다리면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마음 주시는 대로 하면 되겠다는 것이예요. 만약 잘못된 결정이라면 주님이 막아 주시겠구나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전에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만약 실수해도 잘못된 길에서 저를 바른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답대로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졌어요.”

- 정말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죠. 사실 3년 전 이사 올 때 노년을 준비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계속 집과 땅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자꾸 계약이 틀어지면서 성사가 안됐어요. 누가 내 앞에서 방해하는 것 같았어요. 허락하시는 때가 아닌 것 같아 포기하고 전셋집을 구했더니 기간이 차면 계속 이사를 다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6면에 계속)



▶ 지난해 해외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나눈 훈련과정의 섬김으로 다녀오기도 했다. 사진은 훈련과정을 마치고 촬영한 단체사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복음의 빛을 발하라(4)

“주님의 시선으로 이 시대를 보라”

죽을 고비를 만나거나 의학적으로 다 끝났다는 선고를 받으면 허망하고 쓸 데 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다. 죽음의 선고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 위기를 맞이할 때 주님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신다.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둔 시점, 아직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은 헤롯이 46년간 지은 성전의 웅장함을 자랑했다. 제자들의 눈에는 화려한 성전으로 보였지만 주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다. ‘아직’ 화려하고 관촬아 보이는 예배당과 조직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신다. 제자들이 묻는다. ‘여기, 사마리아의 거친 땅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요 4:35) 밭에 있는 곡식을 보시며 하신 말씀이었지만 이것은 곡식얘기가 아니었다. 영적인 얘기였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사마리아에 추수할 때가 이미 되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 눈에는 아무 것도 안

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박합니다. 캠퍼스가 안 바뀌니까.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전도가 안 됩니다. 개척교회는 너무 힘듭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문 닫는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는 너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될 것이라 말하지만,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바로 지금이 낫을 들고 나아올 추수할 자가 필요한 때다.”

“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기도의 제물이 되면
이 세대는
부활의 권능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

지금은 추수할 자가 필요한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차이를 발견했는가? 우리 주님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려운 캠퍼스의 현실과 강해보이는 대적인가? 아니. 오직 능력 있는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십자가 복음에만 능력이 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주님의 능력은 나타날 것이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일어나 기도의 제물이 되면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이 세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밭은 이미 희어졌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영광이다.

지금은 비상한 때다. 배부르고 안전하게, 편안한 인생을 즐기며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세속적 관심사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면 비상한 때를 평범한 때로 여기게 된다. 힘들다, 못한다고 아우성치게 된다.

우리의 시선을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시선으로 캠퍼스를 보라. 이 민족의 미래를 보라. 그리고 선교완성의 비전을 보라. 이 ‘비상한’ 시기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편에 설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 초대에 응답할 사람, 어디 없는가?(2014.8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복음과 기도 메시지 오디오 CD 시리즈



각 오디오CD(2장 한세트) 6,000원 (택배비 별도)

메시지가 CD 2장에 수록되어 있으며, 30분씩 4개의 트랙으로 편집,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용의 선교사 메시지

- * 경건의 열망 _디도서 2:11~14
- *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_마가복음 2:1~12
- *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_요한일서 3:16
- *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 _말라기 3:17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5면에 이어>

Interview

다른 걸 다 몰라도 주님만 알면 충분해요

- 하나님의 계획이라니요?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 부부에게 마지막 보루였던 땅이 작년에 은행에 넣어 갔어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주님이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살자고 하시는구나 싶었어요. 화가 날만도 한데, 마음이 담담했어요. 만약 그 땅에 집을 지었으면 그 집을 가꾸면서 또 얼마나 마음을 빼앗겼을까 생각하니 오히려 주님께 감사했어요. 믿음의 길을 다 공유할 순 없지만, 주님이 제게 하신 것처럼 남편도 함께 가게 하시는 걸 봐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나그네의 삶을 말했는데 남편은 늘 따라와 줘요. 무엇이든 반대하는 법이 없어요. 이곳으로 터를 옮길 때도 그랬어요. 이곳에 와서 남편도 많이 변했어요. 여전히 인터넷도 안배우고 다른 취미도 없지만, 밭을 잘 가꾸고 고구마도 너무 달게 키워요. 저도 남편을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받게 됐어요. 남편이 내 머리가 되어주는 것이 나의 행복이란 걸 이제는 알게 됐어요.”

- 영원한 분향을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이 실재가 됐군요. 마지막으로 기도제목 나눠주세요.

“네, 저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기

도하면 사랑과 감격으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수록 주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만 확실히 믿는다면 다른 걸 다 몰라도 괜찮아요. 복음이면 충분하고 주님이면 충분한 삶이죠. ‘권사님이 한뎀 참 잘 살았는데...’라는 말을 들어도, 예전 같으면 자존심 상했을 텐데 지금은 아니에요. 돈이 더 있고, 세상적으로 좀 더 누리는데도, 세속적으로 좀 더 누리는데도, 다 없어진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좀 실수해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지요. 주님이 그런 저를 받으시고 제가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GNPNEWS]

E.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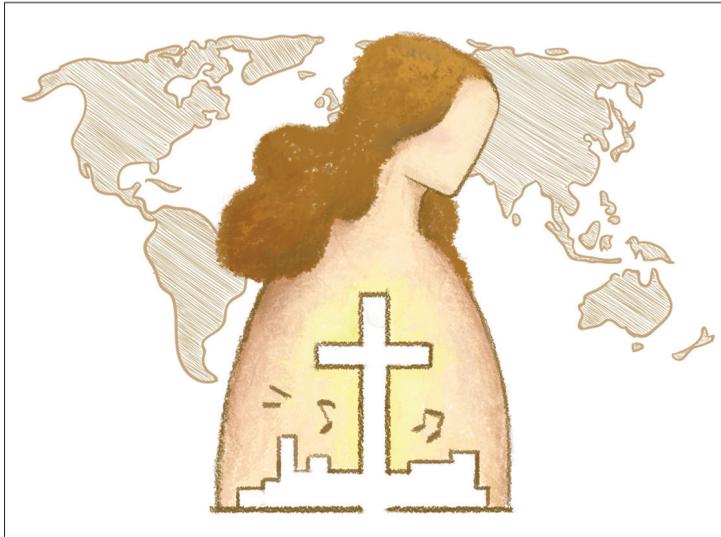


믿음의 삶

영혼이 목마를 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다

6개월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학교 훈련을 다니게 되었다. 학교 훈련 중 꼭 참여해야 하는 과정이 열방 기도센터 방문이다. 방문 하루 전 날까지도 심한 감기로 잠 한숨 못 자면서 '이러다 병원에 실려 가겠구나.'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죽더라도 가야겠다 라는 결단을 내린 후, 병원 처방을 받고 열방기도센터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열방기도센터 벽면에 커다랗게 걸린 세계지도를 보았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출 19:5)" 라는 말씀이 떠오르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마치 손으로 열방을 감싸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2박 3일 동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니 내가 주인 된 모든 영역들이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다. 말씀 안에 나타난 성전의 모형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다.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선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부패한 심령 안에 거하시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다.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라고 호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기도하는 때 시간마다 절절히 느껴졌다. 나를 향하여 완전한 복음을 준비하시고 달려오신 주님.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대가로 나를 성전 삼으시기 원하셨던 마음을 지체들과 함께 보며, 우리가 바로 열방기도센터라는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동일하게

“
주인 된 나의
모든 영역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다
기도 시간마다
나와 만나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

나의 고백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항상 목이 말랐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누구든지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었다. 해갈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 목마름을 다른 것들로 대체 해보려했다. 그럴수록 더 큰 갈증을 만들어 낼 뿐인데 말이다. 이제 확실히 안다. 거짓 속삭임에 더 이상 나를 내어줄 수 없다

는 것을. 다시는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지긋지긋한 병든 자아에 매이고, 자기 연민에 빠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허덕이는 삶 안에 나를 내버려 둘 수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는 삶으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한다.

말씀이 결론되는 영광을 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다. 육체의 고통을 이기고 드린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셨다. 2박3일 동안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다. 목마를 때마다 언제든 24시간 365일 달려갈 수 있는 곳이 있어 감사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버지의 집,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도의 충전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다시 골방으로 파송하는 훈련소인 열방기도센터. 아멘, 제가 바로 열방기도센터입니다! [GNPNEWS]

조명숙



“전도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을 때 가능해요”

한 종합 병원에서 복음을 전했다. 항상 그렇듯 처음 입을 뿜 때는 많은 믿음이 필요했다. 병원 8층에 올라갔지만 계속 복도만 이리저리 다녔다.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병실로 들어갔다.

처음 만난 사람은 20대 형이었다. 내가 보기에는 그 형이 더 나이가 많아 보여서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걸었는데 그 형은 자신이 더 어리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말을 걸었을 때 엄청 긴장해 높임말을 계속 써가며 아주 겸손하게 내 말을 들어 주었다. 그 형은 교회를 12년 동안 다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형에게 물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 형은 고민하는 기색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형에게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나눴다. 진리와 함께 나에게 실체가 된 복음을 나누고 나서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해주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세요. 형제님이 지금 어떤 모습과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

다.” 병실에서 나오는데 그 말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다. “언제든지 돌아와.” 그 짧은 한마디에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믿음의 선포가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나의 모습에 절망하고 있을 때 나도 탕자처럼 그저 종으로라도 받아

“
절망적인 내 모습에
탕자처럼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나를
 종이 아닌
 아들로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다
”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나를 받아 주시고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삼아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해주셨다.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주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셨다. 은혜로 나를 굳게 세우시니 담대해지고 조금 뻔뻔해지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살 길이 없으니 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엔 다른 병실로 갔다. 엄마와 함께 두 아이가 있었다. 게임을 하고 있었다. 게임을 멈추고 복음을

라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생명을 얻는 길이라서 꼭 전해야겠어요.” 아줌마도 한동안은 계속 들어 주셨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와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주님이 하셨다. 전도는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을 때 가능한 것 같다. 그때 순종할 수



있고 더욱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 주시는 시간이었다. [GNPNEWS]

이경석(19)

나의 소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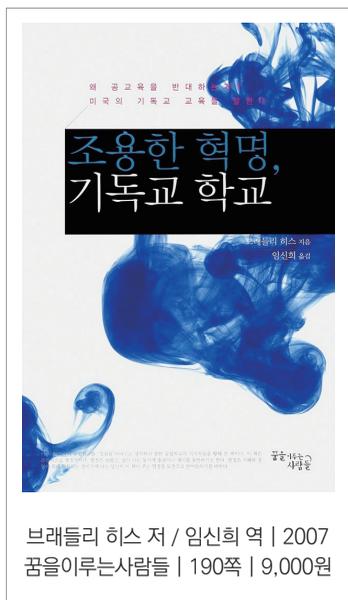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늘 큰 소리로 외치던 최권능 목사. 그 우렁찬 소리에 일본군 연대장이 타고 있던 말에서 떨어졌다. 화가 난 그는 최 목사를 일본군 주재소로 끌고 가 온갖 매질을 하며 심문했다.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소리는 더 커졌다. 매질을 하던 일본군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물었다. “내 속에는 예수님이 꼭 차 있어서 나를 때리기만 하면 내 몸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요!” 군인들은 그대로 그를 풀어주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



이 책은 “공립학교는 주춧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다.”라고 외치는 과감한 책이다. 공교육에 치명적인 결함과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무지로 인해 별 고민 없이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고 있는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공교육은 어린이를 망치고 있다.’고 철되

를 내린다. 12년간 진행되는 공교육의 내용과 맥락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며, 설혹 존재한다 해도 인간 세상에는 관여치 않으신다는 것이다. 결국 신앙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진리는 상대적, 상황적, 개인화 된다. 가장 위대한 덕목은 개방성, 관용, 다양성이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잘못된 것이라는 가치를 공립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결국 왕따, 학교폭력, 경쟁과 입시의 압박 따위보다 더 근본적인 공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나라와 그 뜻과는 아주 멀다는 것이다.

공립학교는 기독교 가정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 교육산업의 전문가주의는 부모를 자녀의 교육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자녀 교육의 방향을 지시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만든다.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배운다.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학습한 아이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없다. 자녀들을 기독교이단 성경공부에 보내거나 이슬람 학교에 입학시키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부모들이 공립학교의 반 기독교적 교육에는 거리낌이 없다. 공립학교는 구조 자체가 중립적이 아닌 비기독교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공립학교는 주춧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다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나도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면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신랄한 비판이 거슬렸다. 그 이유는 내가 바로 공교육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나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20년 가까이 세상의 가치와 철학, 태도, 세계관에 나를 맡겼던 공교육의 산물이다. 물론 존재의 악독함을 모두 공교육의 탓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나 자신과 눈에 보이는 세상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복음의 절대성을 거부하도록 지지

대가 되어 준 교육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진리를 토대로 삼지 않은 교육을 전부로 여기며 인생을 맡긴 끝이 어떤 모습인지는 지금 미국 사회가 어떻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아이들을 세상의 교육시스템 안에 넣고 그것에 상응하는 비용을 치르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마감하려고 하는 태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태도. 마치 기회가 영원한 것처럼 스스로 속이면서도 한 번도 진지하게 점검해보지 않은 안일함. 그 저변에 깔린 세계관과 가치와 문화가 마땅히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심각한 위험성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세 자녀를 홈스쿨링 하면서 교육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 보편타당을 거스르는 결정을 해야 할 때, 내 편에서의 가능성을 따져보

면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만 선택하기로 했다. 말씀에만 순종하기로. 열매는 주님이 맺으실 것이다.

부모로서 자녀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무는 없다. 이 목적지를 역행하는 여행은 어떤 대가를 치르든 하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우리 소중한 다음세대를 그냥 그 자리에 놓아둘 수만은 없다. 시간이 없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GNPNEWS]

이귀영 선교사

11월 11일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기대가 돼요!”

아침 묵상과 기도를 마칠 즈음 제일 먼저 내 앞에 나타나는 막둥이. 잠이 덜 깬 채 졸린 눈을 비비며 건네는 첫 마디는 “엄마, 오늘 하루가 기대된다.”이다. 여섯 살짜리 아이의 고백에 깜짝 놀라며 나를 돌아보게 된다. ‘나는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가 기대 되나?’

나는 16살, 12살, 6살 삼남매의 엄마다. 세 아이를 키우며 각자 다른 아이들의 모습에 웃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한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육체로 낳은 것 외에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얼마나 아이들을 나의 소유물로 여겼는지, 내가 원하는 높은 기준을 주장하며 얼마나 아이들을 어렵게 했는지... 때 순간 주님의 지혜와 믿음이 아니면 지지리 못한 내 모습밖에 직면할 것이 없다.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은 아이들을 통해 복음을 이용하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내 안의 부정함을 완전히 깨뜨리셨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기대하는 자로 바꾸어 주셨다.

그동안 나는 아이들을 여러 신앙 훈련과정에 참여시켰다. 나 자신이 가정 안에서 복음의 통로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훈련을 받을수록 더 자아의 본성대로 반응하는 것만 같았다.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을 보며 절망했다.

아이들을 양육하며 내 안의 부정함을 완전히 깨뜨리신 주님

급기야 사건이 터졌다. 아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속였다. 믿었던 아이에 대한 배신감과 엄마지만 내 아이에 대해 정말 모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를 통해 내가 받게 될 수치와 부끄러움에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는 나의 죄 된 존재의 실상이었다. 나는 나를 너무 사랑했다. 내가 가장 중요했고 모든 마음의 끝이 항상 나를 향해 있었다.

이런 죄 된 나의 실상은 다른 면으로도 나타났다. 성품이 온화하고 유머러스하며 여러 면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딸아이를 보며 마치 내가 인정받는 것처럼 좋았다.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아이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제시했다. 아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이의 존재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내게



없었다. 수많은 고백을 하지만 복음이 실제를 하지만 복음이 실제 되지 못한 불쌍하고 가련한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 망해도 상관없어. 네가 망하는 게 나의 은혜야.” 얼마나 나를 드러내고 싶고 주목받고 싶어 하는지. 이런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시선을 주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로 옮겨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다. 주님은 이제 아이들이 아니라 나를 훈련해 주신다. 한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는 ‘복음과가정’이라는 모임을 통해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기대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순간마다 깨닫게 하신다. 내 안

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난 아이들뿐 아니라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그분은 친절하시고 섬세하시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만 기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다. 주님만 바라보는 바보가 된 것 같아 참 좋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너무 기대 돼요!” 여전히 변하지 않고 늘 똑같은 일상이라도 아이들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GNPNEWS]

손혜영

구독신청 안내

아래의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 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6. 6. 17 ~ 6. 30 (가나다순)
개인
김은영 김태완 박숙자 배종덕 신해경 안은경 이경희 이현희 임향주 임현숙 정영숙 정예하 조경미 조형광 주유순 차인순 표순호 허금희 홍미자 무명
교회 및 단체
복현교회 산돌교회 새소망교회 새순교회 수지선한목자교회 순회선교단다음세대팀 시은좌교회 은혜의샘교회 전주은누리교회 주만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민족기도원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gnpnews@gnmedia.org (12100)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 167(별내동)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경기,다5046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